

범죄발생이 사회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

김 범 준[†]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 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286명(남자 160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범죄 심각성, 지각된 범죄 발생빈도, 지각된 사회불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세 변인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비교적 범죄의 발생이 많다고 지각했으며, 범죄가 약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치는 동안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세 변수의 변화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범죄 심각성과 범죄 발생빈도 추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발생빈도와 범죄심각성 추정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259명(남자 141명, 여자 118명)을 대상으로 7개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25개 범죄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회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7개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력범죄 중 방화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범죄, 범죄발생, 사회불안, 범죄에 대한 두려움

[†] 교신저자 : 김범준,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겸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전문연구원임.
E-mail : kimbj@yonsei.ac.kr

우리 사회는 안심하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곳일까? 아니면 불안한 곳일까? 연일 보도되는 신문을 보면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일매일 큰 일 없이 일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물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무엇, 특히 사회적 사건들과 관계되는 예측 불가능성, 두려움 같은 느낌을 사회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 대해 우리가 갖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불안(societal anxiety)

사회 불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이지만, 정작 심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 심리학계에서 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박수애, 송관재, 2005; 이훈구, 2004; 최인철, 김범준, 2005;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전통적 심리학 주제였던 대인관계의 불안이나 낮은 상황, 특히 낮은 사람에 대한 대인 불안을 주로 사회불안이라고 불리우며 심리학에서 연구되어 왔다(홍영오 등, 2006).

그러나 최근에 개인적 측면보다는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사건들과 관련지은 시도들이 있다. 즉, 사회적 실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사회불안이라고 규정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불안이란 개인적 혹은 개인간의 불안을 넘어서 급격한 사회변화 혹은 기술의 발전, 경제적 불황, 전쟁,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질병, 그 사회의 특수한 상황 등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

회불안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협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된다(박수애, 송관재, 2005).

그렇다면 사회불안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회불안은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실제로 불안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신체적 장애나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위축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이기주의나 사회적 딜레마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나 전체 사회에는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박수애와 송관재(2005)는 사회불안이 우리 개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일반적으로 걱정증상과 신경증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지배력이나 긍정적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분야의 안녕감을 측정하는 요인들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불안은 개인수준의 불안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 중 정치영역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은 꾸밈, 불평, 실수, 점보기와 같은 포기 반응을 주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소망적 사고를 통한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사건들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위기 사회(risk society)와 관련된 분야라거나 심리학계에서 이루어진 안전이나 사회문제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김왕배, 2002; 이영애, 이나경, 2005; 한덕웅, 2003; 한덕웅, 강혜자, 2000;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군석, 1995; Beck, 1992; Fischhoff, Slovic, Lichtenstein, Read, & Comb, 1978; Slovic, 1987, 2000;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0, 1981; Slovic, Lichtenstein, & Fischhoff, 1979; Starr, 1985; Vail, Wheelock, & Hill, 1999; Wilkinson, 2001).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대상이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 등을 위협하게 만든다고 지각할 때 불안을 느낀다(Lazarus & Lazarus, 1994). 예를 들면, 질병, 타인에게 평가받을 일, 그리고 비판이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바로 불안을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건이 불안을 유발시키는 것은 이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사건들이 개인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사회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쟁 위협, 경제적 어려움, 실직, 취업의 실패, 불안정한 정국, 대형 건축물의 붕괴, 범죄, 원자력과 관련된 핵문제, 새로운 과학기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Twenge(2000)는 사회전반에 걸쳐 불안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인 지표(예, 이혼률, 범죄율 등)와 불안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안 수준은 환경의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있었다. 즉, 흉악범죄나 핵전쟁의 위협,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면 우리의 불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50년대 환경상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는 미디어의 발달이 불안 수준을 높이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도 있다. 홍영오 등(2006)은 46개 사회적 사건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은 취업난(실업), 경제불황, 빈부격차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비윤리적 범죄나 강력사건 같은 범죄 유형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정보화 사회관련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범죄로 분류되기도 하는 정보화 사회 관련 범죄의 위험성은 홍영오 등(2006)의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정보 검색프로그램(<http://www.kinds.or.kr>)의 검색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이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하였다. 그 결과 2005년 9월말까지 1,806건의 기사가 검색되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사회에서 정보유출과 같은 컴퓨터 범죄가 중요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건요인들은 1차적으로는 실업이나 빈부격차 같은 경제와 관련되는 문제들이지만, 잠재적으로는 정치인의 부정부패나, 강력범죄, 혹은 비윤리적 범죄, 그리고 정보사회와 관련된 컴퓨터 범죄들이 우리 사회의 불안

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범죄가 사회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일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사회적 사건 중 범죄 사건들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범죄 사건들 중 어떤 범죄 사건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불안 연구 분야나 범죄에 관한 연구 분야 모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몇 년 전 한국 영화계에서 성공한 작품의 하나인 ‘살인의 추억’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였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2007년 3월 7일자 SBS 인터넷 뉴스는 그와 관련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살인의 추억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화성 살인사건.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에 다시 연쇄 실종 사건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30대 여성의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http://news.sbs.co.kr>).”

이 기사에서 묘사된 것처럼,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불안해한다. 이처럼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해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불안의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범죄의 발생으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불안의 문제를 통상

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범죄학이나 범죄 사회학, 그리고 경찰행정학 등 제 분야에서 범죄의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 같은 문제가 연구되어 왔다(김지선, 2004, 2006; 노성호, 김지선, 1998; 박철현, 2005; 최인섭, 김지선, 1997; Amerio & Roccatto, 2005; Liska & Baccaglini, 1990; Moeller, 1989; Warr, 1984).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주거 환경이나 건축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 분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노현선, 1995; 최열, 김효숙, 임하경, 2003; Newman, 1973). 또한 심리학의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졌다(조은경, 1997,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위험성에 대한 지각(perceived risk), 우려(concern), 불안(anxiety), 불안전감(unsafety)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자신이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나 가능성에 대한 추정으로 정의되기도 하고(이윤호, 1993), 피해자가 될 위험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최인섭, 김지선, 1997).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범죄나 범죄와 관련된 상징에 의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박철현, 2005).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다(조은경, 1997). 일반적으로 심리학의 두려움(fear)과 불안(anxiety)에서 말하는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두려움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면 주관적인 신체 불편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해 갖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동안 도망치거나 소리치는 것 행동적 반응을 수반하기도 한다(조은경, 1997).

범죄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재산범죄보다는 신체적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인범죄와 더 관련이 높다고 하겠다(이운호, 1993).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고 그 위험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예를 들면, 야간 외출이나 야간 근무가 많은 사람들이거나 범죄다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나 노인과 같이 신체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Warr, 1984).

성범죄 같은 경우, 그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며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방어능력이 취약하고 피해가 심각한 여성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피해에 더욱 민감하다(황인정, 2007). 물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남녀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어느 면에서 보나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난다(조은경, 200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에 대한 두려

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발생은 다수 혹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신을 낳기도 한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일이 바로 이 같은 사회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일 것이다.

범죄와 같은 많은 사회적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면,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전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저해가 된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히 범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면 개인의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범죄와 사회불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범죄 발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범죄사건 유형들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수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전반적 범죄의 발생과 심각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사회불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추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들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H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286명(남자 160명, 여자 126명; 평균 연령 22.38세)의 학부생들이 부분 학점 이수를 위해 연구에 참가하였다.

조사내용

범죄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당신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0)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0) 매우 심각하다’의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현재 범죄발생빈도 추정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범죄의 발생빈도를 “당신은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10) 매우 자주 발생한다’의 10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다.

사회불안 수준

사회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당신은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전혀 불안하지 않다’ - ‘(10) 매우 불안하다’의 10점 척도 상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사회 불안과 범죄 수준 변화 추정(과거/

현재/ 미래)

사회불안의 수준, 범죄의 심각성 수준, 그리고 범죄의 발생빈도의 정도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는지 ‘회상’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에서 2011년 까지 3년을 주기로 하여 각 시점에서 사회불안 수준을 그래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실제 자료 수집 연도가 2006년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연도 중 2005년을 사용한 이유는 범죄백서에서 제시된 실제 범죄의 발생 추이의 연도가 2005년으로 되어 실제 범죄발생과 비교하기 위해 2005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던 질문 중 범죄의 발생빈도에 관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2005년을 기준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고, 과거와 미래에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할(하였는가) 것인가에 대하여 V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0점이고 최대로 많이 발생하는 정도가 100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에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범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추정

범죄 발생이 불안에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불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하나는 사회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불안이었다. i) 사회불안: “범죄의 발생이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0) 매우 영향을 미

친다'의 10점 척도 상에서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ii) 개인불안: “범죄의 발생이 여러분 자신의 불안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사회불안과 같은 척도를 주고 답하도록 하였다.

절차

설문은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하는 것이라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참가 학생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설문이나 연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료 수집을 마쳤다. 자료 수집은 2006년 6월에 이루어졌다.

결 과

본 연구 1에서는 전반적인 범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조사당시를 기점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범죄와 사회불안의 수준과 변화, 그리고 범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지각과 사회불안

현재의 지각된 범죄 심각성 수준

현재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0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65.9(17.19)로 중간 값인 50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t(284) = 15.66, p = .000$. 즉, 우리 사회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심각성 지각 수준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그 결과, 남자가 63.13(17.09), 여자가 69.56(16.70)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범죄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t(283) = -3.19, p = .002$.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 더 두려움이 크거나(조은경, 2003), 일반적인 위험사건들을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는(Slovic, 2000)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1. 범죄의 심각성과 발생빈도 추정(성별)

구분	성별	평균(SD)	t 값
범죄의 심각성	남	63.13(17.09)	-3.19**
	여	69.56(16.70)	
범죄의 발생빈도	남	6.46(1.48)	-5.14***
	여	7.40(1.61)	

심각성은 0-100점 척도이며 발생빈도는 10점 척도임.
** $p < .01$, *** $p < .001$

현재의 지각된 범죄의 발생빈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단문 형식으로 알아보았다. 이는 1에서 10점상에 응답하는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평균이 6.88(1.60)로 중간 값인 5.5보다 더 커서 우리 사회에 범죄가 자주 발생한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5) = 14.51, p = .000$. 이 같은 빈도 추정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그 결과 남자들이 6.46(1.48), 여자들이 7.40(1.61)으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

이 더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4) = -5.14, p = .000$.

현재의 사회불안 수준

현재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이 6.51(1.68)로 중간 값인 5.5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사회불안 수준이 약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t(285) = 10.19, p = .000$. 이 같은 사회불안 수준에 남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남자들이 6.23(1.62)이었던 것에 반해 여자들은 6.87(1.68)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t(284) = -3.3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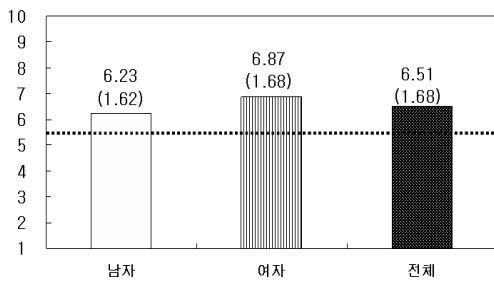


그림 1. 사회불안의 수준(성별)

변화 추정(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변화상에서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발생빈도, 그리고 사회불안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범죄 심각성의 변화

과거 1993년부터 미래인 2011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할 것 같은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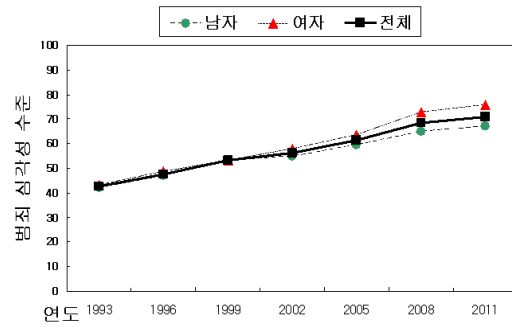


그림 2. 범죄 심각성의 변화 정도(성별)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3년의 경우 42.53(남: 42.06, 여: 43.10), 1996년 47.65(남: 46.90, 여: 48.59), 1999년 53.33(남: 53.32, 여: 53.35), 2002년 56.15(남: 54.84, 여: 57.78), 2005년 61.31(남: 59.55, 여: 63.51), 2008년 68.53(남: 65.06, 여: 72.86), 그리고 2011년 71.00(남: 67.16, 여: 75.81)으로 1993년에 비교한다면 2011년에 약 1.7배 정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F(6, 272) = 52.81, p = .000$.

남여간에도 심각성의 변화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과거의 범죄 심각성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2011년 즉, 미래의 경우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범죄의 수준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2011년의 경우에는 남자가 67.16인 것에 비해 여자는 75.81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더 범죄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t(277) = -3.46, p = .001$. 이 같은 결과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범죄를 더 심각하게 본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범죄 발생빈도 변화

과거 1993년부터 미래인 2011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3년의 경우 43.94(남: 43.21, 여: 44.84), 1996년 49.58(남: 48.73, 여: 50.65), 1999년 56.16(남: 55.84, 여: 56.54), 2002년 57.94(남: 57.01, 여: 59.11), 2005년 62.78(남: 61.01, 여: 65.00), 2008년 69.44(남: 65.91, 여: 73.86), 그리고 2011년 71.91(남: 67.86, 여: 76.99)로 1993년에 비교한다면 2011년에 약 1.6 배 정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F(6, 270) = 47.55, p = .000$. 이를 성별로 보면, 과거의 발생빈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미래의 발생빈도 추정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1년의 경우 남자가 67.86인 것에 비해 여자가 76.99로 더 높은 범죄의 발생빈도를 추정하고 있다, $t(275) = -3.52, p = .000$.

이 같은 발생빈도의 추정이 실제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4의 하단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범죄 발생

건수를 범죄백서(2006)에 의거하여 1993년부터 같은 주기로 표시해 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의 발생건수는 법무 연수원이 2006년에 발표한 범죄백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6년 504,630건에서 2005년 1,893,896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3.7배 증가하였다. 1993년에서 2005년 간의 발생건수만을 보아도 1993년에 1,357천여건, 1996년에 1,485천여건, 1999년에 1,733천여건, 2002년에 1,978천여건, 2005년에 1,894천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5년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하단 그림 참조). 2005년의 발생건수는 1993년의 범죄발생건수에 비교한다면 약 1.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경향은 그림 4에서 제시된 상단의 추정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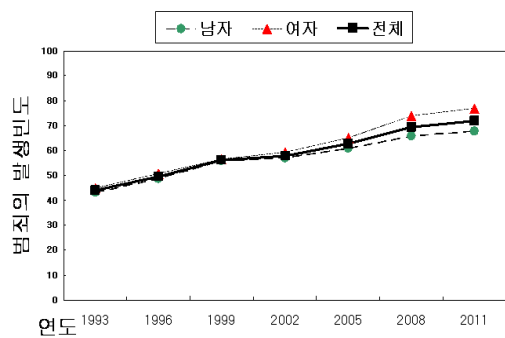


그림 3. 범죄 발생빈도의 변화 정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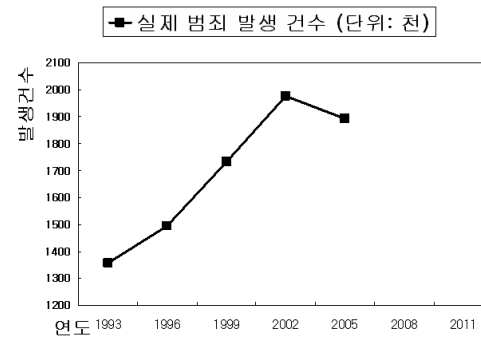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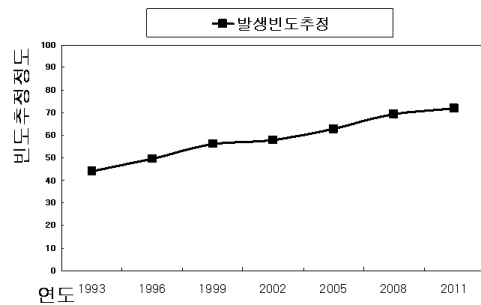


그림 4.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빈도 추정의 변화

이 같은 결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표상이 비교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사람들이 실제로 범죄의 발생빈도를 마음에 가지고 정확하게 추정했다기보다 단순히 범죄 발생이 막연히 증가했을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여 추정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 같은 설명을 제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 수준의 변화

과거 1993년부터 미래인 2011년 사이에 우리사회의 사회불안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현재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미래에 어느 정도일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사회불안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1993년의 경우 38.10(남: 39.94, 여: 35.73), 1996년 44.88(남: 46.87, 여: 42.32), 1999년 53.17(남: 56.58, 여: 48.78), 2002년 52.38(남: 52.78, 여: 51.87), 2005년 59.04(남: 59.30, 여: 58.70), 2008년 66.73(남: 64.15, 여: 70.04), 그리고 2011년 68.43(남: 64.97, 여: 72.89)으로 1993년에 비교한다면 2011년에 약 1.8배 정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F(6, 274) = 57.75, p = .000$.

이 같은 변화의 양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2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남자들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았던 것에 비해 미래에 대한 사회불안 수준은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년도와 성의 상호작용효과: $F(6, 274) = 3.77, p = .001$). 미래에 대한 사회불안 수준에

있어서 성차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최인철, 김범준, 2005). 과거에 있어서 남녀차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이시기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어린 시절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좀 더 부모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범죄의 심각성 정도나 범죄의 발생빈도 그리고 사회불안 수준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6에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변인의 연도별 변화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유사성의 상관관계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범죄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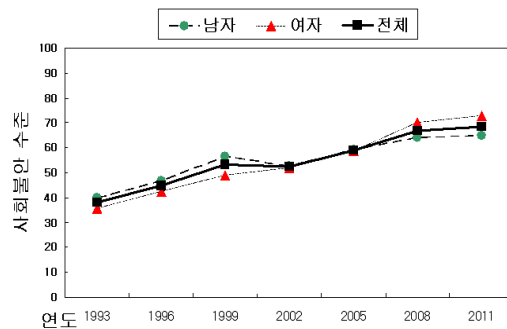


그림 5. 사회불안 수준의 변화(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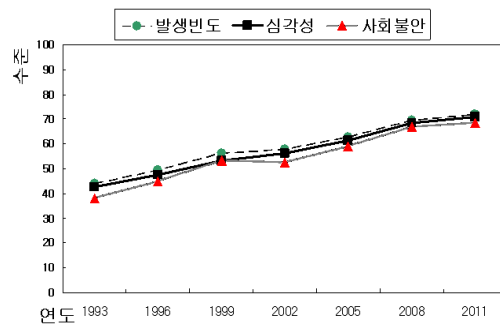


그림 6. 사회불안 수준, 범죄 발생빈도, 범죄 심각성 변화의 비교

빈도와 사회불안간의 유사성 상관관계계수의 평균은 .67이었으며,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불안간의 유사성 상관관계계수의 평균은 .70이었다. 그리고 범죄의 발생빈도와 범죄의 심각성 간의 유사성 상관관계계수의 평균은 .74로 나타나 범죄 발생빈도, 범죄 심각성, 그리고 사회불안 변화의 패턴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범죄 발생빈도, 심각성, 사회불안의 관계

앞에서 범죄의 발생빈도와 심각성 그리고 사회불안 지각의 변화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범죄의 발생이 개인불안이나 사회불안에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 1에서는 범죄가 사회불안과 개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0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먼저, 범죄 발생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정한 전체 평균 값은 7.14(1.69)로 중간 값인 5.5로부터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어 그 영향이 크다고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5) = 16.43, p = .000$. 범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성차가 있어 남자들(6.73)에 비해 여자들(7.66)이 훨씬 그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t(284) = -4.79, p = .000$.

한편, 범죄가 개인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6.1(1.98)로 중간 값인 5.5로부터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어 그 영향이 크다고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5) = 5.13, p = .000$. 범죄가 개인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역시 성차가 있어 남자들(5.48)에 비해 여자들(6.90)이 훨씬 그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t(284) = -6.43,$

$p = .000$.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범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7.14인 것에 비해 범죄가 개인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6.10으로 사람들은 범죄가 개인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는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285) = 11.45, p = .000$.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범죄발생빈도와 범죄에 대한 심각성 판단, 그리고 사회불안 지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범죄 발생빈도와 범죄의 심각성간의 상관관계 $r = .53, p < .01$, 범죄 발생빈도와 사회불안간의 상관관계 $r = .61, p < .01$, 그리고 범죄 심각성과 사회불안간의 상관관계 $r = .48, p < .01$ 로 범죄 발생 추정, 범죄 심각성 추정, 그리고 사회불안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범죄의 발생빈도 추정과 범죄 심각성 추정을 예언변수로 보고, 사회불안 추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표 2에 보는 것처럼,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53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중공선성 검증을 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살펴보는 방법 중 SPSS에서 제공하고 있는 Tolerance 값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olerance 값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값이 0.1보다 적은 값을 가

표 2. 범죄와 사회불안의 상관관계

구 분	사회불안	범죄 발생빈도
범죄 발생빈도	.61**	
범죄 심각성	.48**	.53**

** $p < .01$

표 3. 사회불안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β	R^2	R^2 변화	t 값	Tolerance
범죄 발생빈도	.50	.38		9.27***	.720
범죄 심각성	.22	.41	.03	3.94***	.720

*** $p < .001$

진 변수에 대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변수들의 값이 0.1보다 커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배제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예언 변수 모두 전체 응답자들의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R^2 = .41$, $F(2,282) = 164.16$, $p = .000$. 즉,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았으며, 범죄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면 볼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았다.

연구 2

연구 1의 결과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범죄가 발생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사회가 불안하다는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사람들은 범죄의 발생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범죄의 발생과 사회불안 수준의 변화간에는 그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으로 보아 둘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는 전반적인 범죄의 발생이나 사회불안을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연구 2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별 범죄 사건명을 주고 이에 대한 범죄의 발생 빈도를 추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개별 범죄 발생빈도 지각이 사람들의 사회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하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역시 보다 구체적인 사회불안 척도를 이용하여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하여 범죄의 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연구 1과 같은 서울 소재 H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259명(남자 141명, 여자 118명; 평균 연령 22.43세)의 학부생들이 부분 학점 이수를 위해 연구에 참가하였다.

조사내용

사회불안 수준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최인철과 김범준(2005)이 개발한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이 척도는 모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상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6$ 이었다.

구체적 범죄 사건의 발생빈도에 대한 평정

범죄의 구분은 매우 다양하며, 실제 개별 범죄의 사건내용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포함되는 매우 구별하기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매우 단순한 방법을 택하였다. 즉, 2006년도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제시된 주요 범죄 하위 영역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같은 방식을 선정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범죄의 구분 틀이 현재의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각 범죄 하위 영역에 대한 개별 범죄 사건은 범죄백서에서 제시된 대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외의 사건은 김범준(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 사건들 중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개별 사건들은 대부분 매우 구체적 사건 명칭을 제시하였지만, 포괄적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위 범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i) 강력범죄: 강력범죄는 범죄 유형 중 고전적 의미에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살인’, ‘강도’, ‘방화’, 그리고 ‘강간’을 포함하였다.
- ii) 재산범죄: 재산 상 손실을 주는 범죄 형태로서 ‘절도’, ‘사기’, ‘횡령’을 포함하였다.
- iii) 경제범죄: 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위협하는 것과 관련 있는 범죄로 일반적 항목의 ‘민생 경제범죄’, ‘부동산 투기’, ‘재산세 미납’, ‘주가 조작’, ‘밀수출/밀수입’, 그리고 ‘세금포탈’을 포함하였다.
- iv) 보건범죄: 보건 범죄 역시 매우 포괄적 범죄로, 식품이나 환경, 그리고 의약과 관련된 범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 범죄영역은 구체적 사건 명칭보다 보다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식품 위생 관련 범죄(유해 식품이

나 비위생적 제품 유통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범죄’, 그리고 ‘불법 의료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제시하였다.

v) 마약범죄: 마약 범죄는 실제로 보건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나 그 중요성 때문에 범죄백서에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어 따로 분류하였다. 제시된 구체적 범죄는 ‘마약 복용’과 ‘마약밀수’였다.

vi) 교통범죄: 교통범죄는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죄로 되지만, 본 조사에서는 그 같은 방식이 어려워,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였다. 제시된 구체적 범죄내용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불법 주차차’,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신호위반’이었다.

vii) 컴퓨터 범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화 시대의 범죄로 ‘개인 정보 유출’, ‘몰래 카메라’,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가 포함되었다.

이상의 28개 범죄사건 각각을 대상으로 ‘사건의 발생빈도(① 전혀 없음 - ⑦ 매우 자주 발생)’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였다.

절차

설문은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범죄의 발생의 영향에 관한 것이라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참가 학생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설문이나 연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료 수집을 마쳤다.

결 과

본 연구 2의 결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체 범죄에 대한 빈도와 하위 유형의 범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범죄 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았으며 개별 사건과의 관계를 보지 않았다.

사회불안 수준

먼저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이 4.25(0.69)로 중간 값인 4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사회불안 수준이 중간보다 약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t(257) = 5.81, p = .000$. 이 같은 사회불안 수준에 남녀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그림 7 참조). 그 결과 남자들이 4.10(0.68)이었던 것에 반해 여자들은 4.42(0.65)로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t(256) = -3.78, p = .000$.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사회를 더 불안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박수애, 송관재, 2005; 최인철, 김범준, 2005; 홍영오 등,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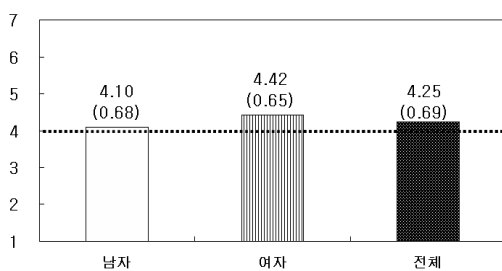


그림 7. 사회불안의 수준(성별: 척도형)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범죄의 발생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개별 범죄 사건의 유형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할까?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2006)에서 발표한 범죄백서의 범죄 유형에 따라 각 유형마다 몇가지 범죄명을 제시하고 그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범죄 유형들 중 어떤 범죄유형이 우리 사회의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사건들의 발생빈도 추정 결과를 먼저 살펴보았다.

범죄 유형별 발생빈도

25개의 개별 범죄들을 각 유형별로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 후 범죄의 유형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¹⁾ 범죄의 유형은 2006년도의 범죄백서에서 제시한 대표적 범죄 유형에 근거하였다. 먼저 실제 범죄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2005년의 실제 사건 발생의 경우, 강력범죄가 19,941건이 발생했으며, 1993년부터 최근 들어 그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산범죄는 총 442,015건이 발생했으며, 이 역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1,114건으로 몇 년간 증가하다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보건범죄는 27,171건으로 2001년 48,606건에 비해 매우 감소했으며, 분류상 보건범죄의 하나인 마약범죄는 7,154건으로 최근 그 증가

1) 개별 사건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부록 2에 수록하였습니다.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범죄는 214,171건으로 역시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15여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컴퓨터 범죄는 총 접수된 7,410건 중 처리된 건수가 7,196건으로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그 증가 추세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금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범죄에서는 재산범죄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교통범죄, 보건범죄, 그리고 강력범죄의 순이었다.

한편,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추정한 범죄의 발생빈도는 전체 범죄의 경우 그 평균빈도 추정이 4.29(1.28)로 중간 값인 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발생빈도를 추정하였다, $t(253) = 3.59, p = .000$. 하위 범죄유형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정한 범죄유형은 교통범죄(4.87)이었으며, 다음이 컴퓨터 범죄(4.54), 재산범죄(4.48), 보건범죄(4.26), 경제범죄(4.07), 강력범죄(3.79), 마약범죄(3.23)의 순이었다, $F(6, 248) = 95.34, p = .000$ (그림 8 참조).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일정한 차이는 있으나 실제 범죄와 응답자들이 범죄발생빈도 추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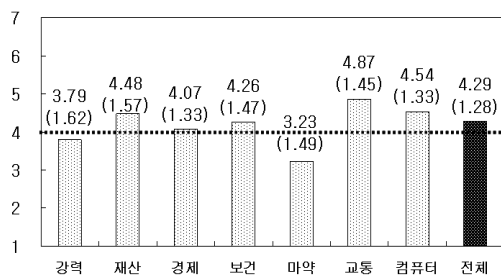


그림 8. 전체범죄와 하위 범죄영역의 발생빈도 평균

속에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성별에 따른 발생빈도

범죄의 발생빈도 추정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강력 범죄만이 남자의 발생빈도 추정이 3.52(1.58)인 것에 반해 여자의 발생빈도 추정이 4.11(1.61)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강력범죄가 더 발생한다고 추정하였다, $t(257) = -2.97, p = .003$. 그이외의 다른 범죄 유형에서는 남녀간에 범죄발생빈도 추정에 있어서

표 4. 성별에 따른 범죄 유형별 발생빈도 추정의 평균과 표준편차

범죄유형	성별	평균(SD)	t 값
강력범죄	남	3.57(1.54)	-2.71**
	여	4.07(1.60)	
재산범죄	남	4.42(1.47)	-.28
	여	4.47(1.66)	
경제범죄	남	4.07(1.30)	.24
	여	4.03(1.33)	
보건범죄	남	4.24(1.41)	-.12
	여	4.26(1.53)	
마약범죄	남	3.19(1.49)	-.67
	여	3.31(1.46)	
교통범죄	남	4.77(1.33)	-.76
	여	4.90(1.54)	
컴퓨터 범죄	남	4.40(1.34)	-1.46
	여	4.63(1.28)	
전체범죄	남	4.20(1.20)	-1.02
	여	4.35(1.31)	

** $p <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력범죄의 경우 개별 범죄들의 발생빈도 추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방화를 제외한 3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 남자가 3.25(1.70)인데 반해 여자는 3.93(1.75)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살인 사건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t(257) = -3.12, p = .002$. 강도의 경우에는 남자가 3.90(1.77), 여자는 4.50(1.88)로 역시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강도사건이 더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t(257) = -2.64, p = .009$.

그리고 강간의 경우 역시 남자가 3.57(1.90), 여자가 4.27(1.82)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강간이 더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t(257) = -2.99, p = .003$. 강간의 경우는 성관련 범죄로서 일관성 있게 성차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범죄이다(조은경, 2003). 하지만 방화의 경우에는 남자가 3.36(1.64)이었고, 여자는 3.75(1.65)로 여자가 남자보다 방화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을 보였을 뿐이다, $t(257) = -1.87, p = .063$.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

사회불안이란 개념 자체가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협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박수애, 송관재,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범죄들의 발생빈도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범죄발생빈도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²⁾ 그 결과, 범죄의 발생빈도에 대한 β 값이 .24($t = 3.87, p = .000$)로 범죄가 발생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51) = 15.01, p = .000$.

그렇다면, 어떤 범죄 유형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의 사회불안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범죄유형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³⁾ 그 결과,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개의 범죄유형 중 강력범죄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R^2 = .07, F(1, 251) = 17.95, p = .000$. 즉,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가 사회가 더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개별 강력범죄의 발생빈도 추정의 평균과 표준편차

범죄사건	성별	평균(SD)	t 값
살인	남	3.25(1.70)	-3.19**
	여	3.93(1.75)	
강도	남	3.90(1.77)	-2.64**
	여	4.50(1.88)	
방화	남	3.36(1.64)	-1.87
	여	3.75(1.65)	
강간	남	3.57(1.90)	-2.99**
	여	4.27(1.82)	

* $p < .05$, ** $p < .01$

2) 연구 1에서 전반적인 범죄발생빈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연구 2에서는 개별 사건을 제시하고 이 사건들의 전체 발생빈도 평균을 통해 검증했다. 일종의 반복 검증이라 할 수 있다.

3) 7개 범죄유형간의 상관관계계수는 부록 3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표 6. 사회불안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β	R^2	t 값
강력범죄	.26	.07	4.24***

*** $p < .001$

강력범죄가 사회불안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강력범죄가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이 같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 범죄 유형에 속하는 ‘살인’, ‘강도’, ‘방화’, 그리고 ‘강간’의 발생빈도 추정값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개의 강력범죄 사건 중 방화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R^2 = .07$, $F(1, 256) = 18.44$, $p = .000$. 즉, 방화 범죄가 발생할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되었던 강력범죄 중 강간과 같은 사건은 성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강력범죄와 사회불안간의 상관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자의 경우, 살인($r = .19$, $p < .05$), 강도($r = .21$, $p < .05$), 방화($r = .25$, $p < .01$)는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강간($r = .13$, $p = .124$)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여자들의 경우에는 살인($r = .19$, $p < .05$), 강도($r = .22$, $p < .05$), 방화($r = .22$, $p < .5$), 그리고 강간($r = .20$, $p < .05$) 모두가 사회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성차를 보여주었다.

표 7. 사회불안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β	R^2	t 값	
방화	남자	.25	.06	3.09**
	여자	.22	.05	2.47*
	전체	.30	.07	4.30***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러나 남녀로 구분하여 개별 강력 사건의 발생빈도 추정치를 예언변수로 하고 사회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녀 모두에서 방화만이 사회불안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남자: $R^2 = .06$, $F(1, 139) = 9.53$, $p = .002$; 여자: $R^2 = .05$, $F(1, 115) = 6.08$, $p = .015$).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해석은 기존 연구들(박수애와 송관재, 2005; 홍영오 등, 2006)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불안이라는 개념이 개인불안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강간과 같이 여성들에게 취약한 범죄의 경우, 여성 개개인이 느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클지 모르지만, 이것이 항상 사회가 불안하다는 느낌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관계는 추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범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지각된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

지각된 범죄에 대한 발생빈도, 지각된 사회불안, 범죄가 개인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범죄와 사회불안의 변화에 대한 추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범죄의 심각성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65.96으로 비교적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의 발생빈도 역시 6.88로 보통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불안 수준은 10점 만점에 6.51로 역시 중간 이상의 불안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사회불안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최인철, 김범준, 2005; 홍영오 등, 2006).

한편, 범죄와 사회불안의 변화는 범죄와 사회불안이 서로 관계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범죄 심각성, 범죄 발생빈도, 그리고 사회불안 수준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범죄 심각성은 시간이 변하면서 점진적으로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고 미래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범죄의 발생빈도 경우에도 역시 범죄의 심각성과 같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였고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범죄 발생빈도의 경우 실제 범죄 발생건수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제 범죄 발생건수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의 인식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인식의 정확성은 최인철과 김범준(2005)의 사회불안의 예측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인식이 왜곡되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회불안 수준 변화 역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있었고 앞으로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 발생빈도 그리고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그 변화의 패턴이 시간 변화상에서 매우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여 서로 관계가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밝혀진 범죄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구체적인 사건명을 제시하고 이 사건들의 발생빈도를 추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회불안 역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범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7개의 하위 범죄유형(개별 사건을 7개 하위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강력범죄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대인피해가 큰 심각한 강력범죄가 개인의 두려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이윤호, 1993), 사회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력범죄 중 어떤 개별범죄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4가지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화사건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방화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강력 사건에 비해 방화사건은 대인 피해뿐만 아니라 대물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그 피해의 폭이 넓은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화는 특정지역이나 대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대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불안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화는 실제로 사회적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반달리즘의 한 형태로 방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경향성 또한 사람들이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관계나 혹은 다른 강력 범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결과는 성별의 영향이었다. 모든 범죄 추정치와 사회불안 지각에 대한 성별의 효과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들은 범죄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범죄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래의 범죄 예측에서도 더 악화된 추정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불안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더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꼈고, 미래의 사회가 더 불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남녀차이는 구체적 사건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즉, 강력사건의 경우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구체적 범죄들에서도 이 같은 성차가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이윤호, 1993; 황인정, 2007; Warr, 1984).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차 이외에 범죄에 취약한 계층(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범죄

혹은 젊은 사람과 노인의 비교, 그리고 범죄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범죄가 사회 불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Moeller, 1989; Tulloch, 2000; Warr, 1984). 또한 범죄에 대한 성차 연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남성들보다 여자들이 실제로 심리적 불안이 높아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단지 지각상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범죄 즉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범죄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홍영오 등(2006)의 뉴스검색 결과를 보더라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불안이나 영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최인철과 김범준(2005)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정보화 사회의 범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연구해 봐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유형을 실제 범죄 실태와 비교해 보기 위해 범죄백서에 제시된 범죄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두려움이나 사회불안에 초점을 둔다면 범죄를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대인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인가 혹은 대물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인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혹은 특정 대상인지와 같은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한다면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2에서는 구체적 범죄를 판단하는

차원으로 범죄발생빈도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두려움이나 사회불안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통제가능성, 범죄의 피해범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범죄에 대한 판단 차원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범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범죄사건들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범죄 유형을 예언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개별 사건들보다 범죄 유형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것이 결과의 일반화에 더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사건 하나하나의 영향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개별 사건들의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심각성과 발생빈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발생빈도의 경우 현실과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철과 김범준(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변화 예측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기사와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의 예측과 현실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범죄의 발생 통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범죄의 심각성 자료라거나 신문기사, 그리고 그이외의 객관적 자료의 비교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발생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범죄의 발생이 선행하여 발생하고 그 결과로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발생과 사회불안이라는 두 변수만을 놓고 본다면 그 관계는 현재의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과적 순서와 반대의 관계를 상정할 수도 있다. 즉,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 발생의 빈도 추정에서 더 많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이 가능한 것은 본 연구가 상관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범죄 피해경험을 하게 한다거나 점화와 같은 조작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보다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범죄는 단순히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회가 불안하다는 느낌까지 갖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개개인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적으로 안전한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다거나(노현선, 1995; 최열, 김효숙, 임하경, 2003), 경찰의 치안을 좀 더 확보한다거나(이성식, 2000; 주희중, 1999) 혹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범죄에 의해 갖게 되는 사회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이 같은 범죄의 발생으로 생기는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대학생 역시 다양한 범죄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범죄의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관련 범죄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범준 (2007). 범죄사건의 차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미술간 논문.
- 김왕배 (200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 조사연구.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 기획단.
- 김지선 (2004).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 피해자학 연구, 12, 25-57.
- 김지선 (2006).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삶: 사회적 구성과 결과. 파주: 한국학술정보.
- 노성호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 169-205.
- 노현선 (1995). 아파트 거주자의 범죄불안감과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 분당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29.
- 박철현 (2005). 범죄피해경험, 이웃통합,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대학생에 대한 심층 면접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3, 51-77.
-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이성식 (2000). 지역 사회 경찰활동과 범죄 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133-159.
- 이영애, 이나경 (2005). 위험지각의 심리적 차원. 인지과학, 16, 199-211.
- 이윤호 (1993). 범죄에 대한 공포: 그 원인과 반응. 형사정책연구, 4, 27-44.
-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 - 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 서울: 법문사.
- 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29-51.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21.
- 주희중 (1999). 범죄에 대한 공포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8, 87-121.
- 최열, 김효숙, 임하경 (2003). 공동주택의 범죄 발생 실태 및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15, 25-37.
- 최인섭, 김지선 (1997).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한덕웅 (2003). 한국 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35-55.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5-37.
-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군석 (1995).

- 한국 사회 문제의 지각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 99-111.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129-160.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107-121.
- SBS 뉴스 (2007). 또 '살인의 추억'? 화성 30대 여성 시신 발견. 2007. 03. 07.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27968.
- Amerio, P., & Roccato, M. (2005). A predictive model for psychological reactions to crime in Italy: An analysis of fear of crime and concern about crime as a social problem.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17-28.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
-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 Comb,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 9*, 127-152.
- Lazarus, R. S., & Lazarus B. (1994). *Passion &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Liska, A. E., & Baccaglioni. W. (1990). Feeling safe by comparison: Crime in the newspapers. *Social Problems, 37*, 360-374.
- Moeller, G. L. (1989).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The effect of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Social Inquiry, 59*, 209-221.
- Newman, O. (1973). *Defensible space*. New York, NY: The Macmillan Company.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Earthscan Publication Ltd.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0). Facts and fears: Understanding perceived risk. In R. Schwing and W. A. Albers, Jr.(Eds.), *Societal risk assessment: How safe is safe enough?* (pp. 181-214). New York: Plenum Press.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1). Perceived risk: Psychological factors and social implications. In F. Warner and D. H. Slater (Eds.), *The assessment and perception of risk*(pp. 17-34). London: The Royal Society.
- Slovic, P, Lichtenstein, S & Fischhoff, B. (1979). Images of disaster: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risks from nuclear power. In G Goodman & W Rowe(eds), *Energy risk assessment*(pp.223-245). London:Academic.
- Starr, C. (1985). Risk management, assessment, and acceptability. *Risk Analysis, 5*, 97-102.
- Tulloch, M. (2000). The meaning of age differences in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451-467.
- Twenge, J. M. (2000). The age of anxiety? Birth cohort change in anxiety and neuroticism, 1952-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07-1021.
- Vail, J., Wheeloc, J., & Hill, M. (1999). *Insecure times: Loving with insecurity in contemporary society*. London: Toutledge.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Forces*, 61, 1033-1043.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7. 23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8. 8

Wilkinson, I. (2001). Social Perception of Risk Perception: At Once Indispensable and Insufficient. *Current Sociology*, 49(1), 1-21.

The Crime Effect on Societal Anxiety

Beom Jun Kim

Kyonggi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crime on societal anxiety. For this purpose, two studies were conducted. In study 1,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6 students(male 160, female 126) regarding perceived seriousness of crime, estimation of crime occurrence, societal anxiety, and estimation of change in these 3 variables every 3 years from 1993 to 2011. The means of the 3 variables were higher than the midpoint of the scale. And the means of all the 3 variables gradually increased from 1993 to 2011 and the change patterns were very similar. Furthermore, the estimation of crime occurrence and perceived seriousness of crim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etal anxiety. Study 2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 of frequency estimation of the criminal acts on the societal anxiety. The data from 259 subjects(male 141, female 118) were analysed. The occurrence of frequency of 7 types of crimes including 25 criminal acts were estimated and societal anxiety was measured. The results of study 2 showed that only the major crime was significant a predictor of societal anxiety, and among the major crimes, ars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dependent variable.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crime, crime occurrence, societal anxiety, fear of crime

부록 1. 사회불안 척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게 될까봐 불안하다.
내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된다.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까봐 걱정스럽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다 늘 조심스럽다.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불안할 때가 있다.
무슨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우리 사회에는 믿고 따를만한 지도자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앞날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규칙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준이나 규칙 같은 것이 너무 자주 바뀐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우리나라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할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칙들이 너무 빨리, 그리고 자주 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부록 2. 범죄의 발생빈도 추정의 평균과 표준편차(성별)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강력범죄	살인	3.25	1.695	3.93	1.748	3.56	1.750
	강도	3.90	1.774	4.50	1.875	4.17	1.842
	방화	3.36	1.644	3.75	1.650	3.54	1.655
	강간	3.57	1.902	4.27	1.819	3.89	1.893
재산범죄	절도	4.47	1.767	4.81	1.822	4.62	1.797
	사기	4.57	1.798	4.64	1.924	4.60	1.853
	횡령	4.28	1.774	4.13	1.902	4.21	1.831
경제범죄	민생경제범죄	4.07	1.787	4.28	1.632	4.17	1.718
	부동산 투기	4.62	1.930	4.90	1.837	4.75	1.890
	재산세 미납	4.18	1.756	4.26	1.689	4.22	1.723
	주가 조작	3.75	1.591	3.49	1.595	3.63	1.595
	밀수출/밀수입	3.71	1.695	3.42	1.641	3.58	1.674
	세금포탈	4.09	1.592	4.03	1.641	4.06	1.612
컴퓨터 범죄	개인정보유출	4.97	1.805	5.25	1.734	5.10	1.775
	몰래카메라	4.02	1.857	4.42	1.716	4.20	1.802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4.31	1.719	4.37	1.719	4.34	1.716
보건범죄	식품위생관련 범죄	4.32	1.658	4.55	1.833	4.42	1.740
	불법 의료 행위	3.87	1.704	3.87	1.684	3.87	1.692
	환경문제와 관련된 범죄	4.51	1.773	4.48	1.730	4.49	1.750
마약범죄	마약복용	3.28	1.587	3.44	1.599	3.36	1.591
	마약밀수	3.02	1.615	3.19	1.469	3.10	1.549
교통범죄	음주운전	4.77	1.750	4.91	1.957	4.83	1.845
	뺑소니	3.99	1.748	4.37	1.748	4.16	1.756
	무면허 운전	4.05	1.810	4.15	1.796	4.10	1.801
	불법 주정차	4.97	1.777	5.21	1.749	5.08	1.765
	안전벨트 미착용	5.04	1.691	5.24	1.843	5.13	1.762
	과속	5.42	1.555	5.39	1.798	5.40	1.668
	신호위반	5.26	1.665	5.46	1.743	5.35	1.701

부록 3. 범죄 유형간의 상관관계 계수

범죄유형	강력범죄	재산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81**	1				
경제범죄	.70**	.78**	1			
컴퓨터범죄	.66**	.72**	.75**	1		
교통범죄	.68**	.74**	.82**	.71**	1	
마약범죄	.59**	.62**	.64**	.49**	.60**	1
보건범죄	.60**	.70**	.84**	.71**	.80**	.62**

** $p < .01$